

## 언어와 역사

도수희  
(충남대 명예교수)

### I

1.1. 언어와 역사는 손등과 손바닥의 관계처럼 밀접하다. 역사적 사실은 언어 기록으로 남게 되고 언어 또한 그 역사에다 흔적을 남기기 때문이다. 역사는 잊어버린 언어를 수시로 찾게 하고 때로는 언어가 역사적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어주기도 한다.

1.2. 어휘 중에서 그 활용도가 가장 높은 존재가 지명이다. 지명은 사람이 활약하는 땅(무대)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고유명사 중에서 수가 가장 많다. 그리고 어휘 가운데 보수성이 제일 강한 존재가 지명이다. 지명은 한번 생성되면 내내 본래대로 사용됨이 보편적이지만 더러는 소지명(小地名)으로 축소되어 본래의 지칭 지역내의 어딘가에 화석처럼 잔존한다. 가령 신라 첨해왕 연간(247~261)에 흡수된 '사벌국'(沙伐國)은 沙伐州>上州>尙州로 주명(州名)이 개정되었지만 본래의 지명 '沙伐'은 현재 '沙伐面 沙伐里'로 잔존해 있고, 백제의 마지막 수도이었던 '所夫里'도 신라 경덕왕 16년(757)에 현재의 '扶餘'로 개정되었지만 본래의 이름은 부소산 자락에 위치한 옛 부여박물관(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음)의 앞마을 이름 '소부리'로 여전히 잔존하여 쓰이고 있다. 이처럼 거의 모두가 좀체로 사어(死語)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옛 지명은 역사적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의 증거력이 매우 강하다. 이 글은 이런 특성을 지닌 지명 자료를 토대로 언어와 역사의 관계를 논의하는데 목적이 있다.

---

【주요어】 백제전기어, 가라어, 고대 일본어, 기본수사체계, 차용, 문화사적 지배 관계

1.3. 이 글은 다음 3개항의 문제를 제기하고 각 항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 논의하게 된다.

첫째, 옛 지명의 분포를 토대로 백제 전기 시대(18 B.C.~A.D. 475)의 판도를 추정하고, 이 판도를 근거로 신라의 통일이 '3국 통일'이 아닌 '2국 통일'임을 논증하게 된다.

둘째, 옛 지명의 분포에 따라서 백제어와 가라어의 상관성을 구명(究明)하고, 이를 근거로 양국의 문화사적 교린(交隣)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지명 자료를 중심으로 백제의 전기어와 고대 일본어와의 상관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어느 통로(通路)로 백제어가 일본어에 유입(流入)되었는가? 양국어의 어휘상 동질성이 계통 관계인가 아니면 차용 관계인가를 구명하여 문화사적인 지배 관계를 천명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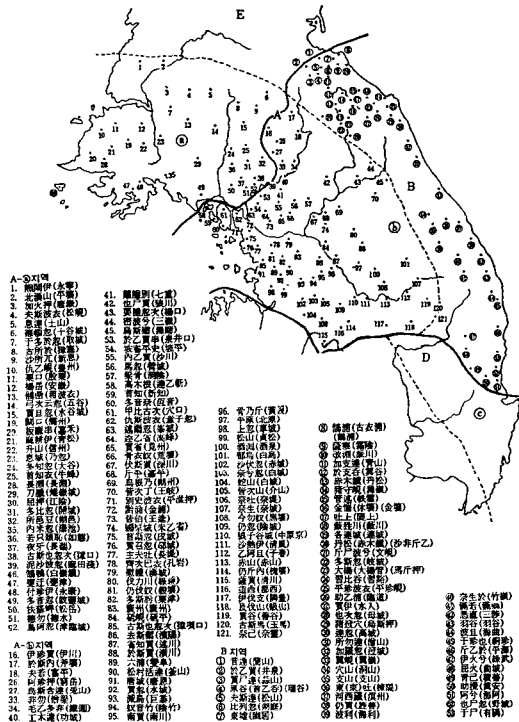
## II

### 2.1. 백제의 전기판도와 그 지명 자료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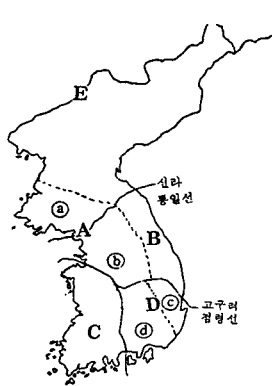
2.1.1.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백제사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공주 시대 63년간(475~538)과 부여시대 122년간(538~660)에 거의 고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185년은 백제사 678년의 1/4가량에 불과하다. 그러면 거의 3/4에 해당하는 나머지 493년의 백제사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잃어버린 백제사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우선 공주-부여 시대의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그 이전의 백제사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바르게 인식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필자(1977: 47)는 『삼국사기』 권35(지리2)와 권37(지리4)의 이른바 '고구려 지명록'의 지명 가운데서 백제가 빼앗긴 영토 안에 있는 고유 지명들을 백제 전기어로 추정하고 69개 지명의 본적을 백제로 옮겼다. 이는 김정호(金正浩)가 『대동지지』 권5에서

<지도 1> 백제 전기의 추정 판도



<지도 2> 삼국의 전기 및 말기의 판도



<보기>

- A(㉔+㉕) 지역: 백제의 전·중기 지역  
(기원전 18-475, 493년간)
- A·B 지역: 고구려의 점령 지역  
(476-553, 77년간)
- B-㉖ 지역: 신라의 점령 지역  
(553-668, 115년간)
- C 지역: 마한 지역(백제 점령 이전, 346년 이전)  
백제의 점령 지역  
(중·후기 지역)(346-660, 314년간)
- D-㉗ 지역: 신라 전기·중기·후기 지역  
(기원전 57-935)
- D-㉘ 지역: 가야 지역(42-532 또는 562)  
신라의 점령 지역(532 또는 562 이후)
- E 지역: 고구려의 본 영토  
(압록강의 남·북 지역)(기원전 37-668)

충주 청풍 단양 괴산 제천 영춘 연풍 청주 청안 진천은 백제가 공주로 수도를 옮긴 후에 고구려가 취한바 되었다. 양원왕 7년(551)에 이르러 신라에 들어갔다(忠州淸風丹陽槐山堤川永春延豐淸州淸安鎭川百濟南遷後爲高句麗所取至陽原王七年入于新羅).

와 같이 주장한 선견(先見)에 따랐을 뿐이다.<sup>1)</sup> 여기에도 필자는 53개 지명을 더 찾아내어 추가하였다. 그 근거는 백제의 전기 시대에 백제왕들이 활약한 영역을 『삼국사기』 백제 본기를 중심으로 작도한 판도이다(<지도 1> 참고).

2.1.2. <지도 1,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고대 한반도의 중부지역(특히 A·B지역)은 영토쟁탈의 공방이 극심하였던 곳이다. 한때는 북부 세력간의 공방이 치열하였고, 때로는 남북간의 일진일퇴(一進一退)가 잦았던 곳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대 삼국의 전기와 중기에 있어서의 중부지역은 결코 고구려만의 소유가 아니었다. 이 시기의 고구려의 중심부는 졸본(卒本) 혹은 국내성(國內城)으로 그 영토의 남계(南界)는 압록수(鴨渌水) 이남의 패수(靑川江 혹은 大同江)이었다는 사실(史實)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백제의 전기(18B.C.~475) 이전까지는 고구려는 이 중부지역(특히 A·B지역)과 영토 상으로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논증하기 위하여 『삼국사기』 백제 본기의 기사를 중심으로 백제의 전기판도를 재구한 결과 앞에서 제시한 <지도 1, 2>의 A(㉠-㉢)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곧 백제의 전기 영역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중부지역 중 A지역의 지명은 기층 면에서 백제어와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확신한다. 그러나 <지도 2>가 보이는 바와 같이 B지역은 처음부터 백제와는 무관하였던 것으로 거의가 신라의 동북부(현 강능까지) 영역이었으며, A지역은 고구려의 점

1) 보다 이른 시기의 『고려사』 지리1에서도 양광도는 본래 고구려 백제의 영토이었으나 한강 이북은 고구려이고 이남은 백제이었다(楊廣道 本高句麗百濟之地 漢江以北高句麗 以南百濟)라고 판단하였고, 『문헌비교』(영조 시대간?)도 『삼국사기』 지리 2, 4에 등재되어 있는 ‘買省~馬忽, 骨衣奴~骨衣內, 皆伯~王逢, 伏斯買~深川’ 등 이른바 고구려 지명을 백제지명으로 환원하였다.

유 77년 이후에는 다시 ㉠-㉢와 같이 두 지역으로 분리된다. 따라서 ㉠지역만은 장수왕의 점령(475년)이후 2세기에 가까운 동안(약 192년간)이나 고구려의 통치하에 있었으나 ㉢지역은 77년간은 고구려에, 116년간은 신라에 예속되었던 것이니 이 기간에 고대 한반도 중부지역의 전래 고유지명이 A-B>E, B(㉢)>D로 변화하였거나, 개정명(혹은 漢譯名)에 의하여 줄지에 축출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A-㉢지역은 신라의 점령기간이 고구려보다 거의 1.5배나 길었고, 더구나 고구려보다도 뒤에 점령 통치하였던 것이니 점령기간을 중심으로 따진다면 오히려 신라의 지명이라고 하여야 옳다. 더욱이 A-㉠은 192년 동안이나 고구려가 점령 통치하였고, A-㉢는 고구려 점령통치의 77년간에서 벗어나 신라의 점령통치는 116년 간이나 받았는데도 ㉠-㉢의 지명특성이 공교롭게도 ㉠=㉢라는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3. 공교롭게도 『삼국사기』 지리 2, 4의 이른바 고구려 지명이 분포한 범위는 백제의 수도 ‘한홀’(漢忽: 현 경기 廣州) 시대(18B.C.~475)에 백제로부터 빼앗은 영토(<도표 1, 2>의 A지역)와 신라에서 빼앗은 동북부의 B지역에 거의 국한한다.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고는 하나 사실은 唐나라가 고구려의 본래 영토는 내주지 않았다. 다만 고구려가 이미 점령하였던 옛 백제 영토인 A지역과 신라 영토인 B지역(고구려의 본래 영토가 아닌)만을 신라와 막후의 흥정으로 양보한 듯하다. 그 증거가 『삼국사기』 지리 4의 ‘고구려에 관한 기사’ 중에 다음과 같이 숨어 있다.

그 지역이 많이 발해·말갈로 들어가고, 신라 역시 그 남쪽의 지경을 언어서 한주·삭주·명주 3州 및 그 郡縣을 설치하여 9州를 갖추었던 것이다(其地多入渤海靺鞨 新羅亦得 其南境以置漢朔溟 三州及其郡縣 以備九州焉).

의 내용으로 보아 신라는 그 남부(南境)의 일부만을 차지하였을 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언어서’(得)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의로 취(取)하는 것과는 의미가 상반되기 때문이다. 『삼국사기』 지리 1의 서언 말미에 있는 기

## 술 가운데

옛 고구려 남쪽 지경에도 3州를 두니, 서쪽에서부터 첫째를 한주(漢州)라 하고, 다음 동쪽을 삭주(朔州)라 하며, 또 그 다음의 동쪽을 명주(溟州)라 하였다(於故高句麗南界置三州 從西第一曰漢州次東曰朔州 又次東曰溟州).

에서 ‘高句麗南界’란 표현의 깊은 속뜻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南境(혹은 南界) 이북의 광활한 고구려 본토의 지명은 애석하게도 남겨지지 않았다. 만일 신라가 고구려의 본토까지 명실공히 통일하였다면 그 광활한 지역의 고구려 지명이 고스란히 『삼국사기』 지리지에 전해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되었다면 지명분포에 따라서 고구려의 판도를 정확히 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어를 파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선주족이 살던 곳에 남긴 문화유산은 오랜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거의가 마멸되거나 소멸된다. 그러나 다음 두 경우만은 예외일 만큼 보다 오랜 보수성을 갖는다. 그 하나는 지하에 묻힌 유물이고, 다른 하나는 지상에 고착한 지명이다. 지하의 유물에 대하여는 잘 알려진 사실이기에 여기서 거듭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지명에 대한 보수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여 보기로 하자.

『구약성서』(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the Tower of Babel)의 옛 고장인 ‘바빌론’(여기서 ‘이스타르 여신’ 문 장식(2400B.C.)이 발견됨)을 비롯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한 ‘우르’(여기서 ‘은사자머리’(2650~2550B.C.)가 발견됨)와 ‘우르크’(우르크의 3.6m 높이 석조전(3600B.C.), 아수르왕국의 ‘아수르’ 등이 현재 이라크에 잔존하여 쓰이고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기원전 1100년경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역사적 사건의 지명이 곧 『구약성서』에 나오는 ‘엘라’ 골짜기이다. 그 때로부터 31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쓰인다. 동일 시기의 지명 ‘예루살렘, 베들레헴’도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쓰이고 있다. 이 두 지명의 사이에 위치한 지명인 ‘르바임’ 골짜기도 그대로 쓰인다. 어찌 그뿐인가! ‘갈보리(>갈바리아), 갈릴리, 요르단, 데살로니가, 빌리보,

에베소, 갈라디아, 안디옥, 다메섹, 가나안, 고린도, 구레네, 이스라엘' 등의 옛 지명들이 거의 변함없이 쓰여 왔다. 또한 Hawaii 열도에는

Hawaii, Molokai, Molokin, Wainapanapa, Wailau, Waikiki, Ohau, Honolulu

등과 같이 선주족의 지명이 많이 잔존하고 있으며, 시베리아에도

Aobj, Atobj, Brobj, Kobj, Sobj, Tymkobj

등의 강 이름이 원시지명 그대로 쓰이고 있다. 이태리에도 로마제국 이전에 상륙하여 건설한 희랍의 식민 지명이 로마의 지명으로 바뀌지 않고

Cuma, Neapolis(the new city) > Napoli, Pozzuoli, Pompei, Sisiry

등과 같이 본래대로 남아 있다. 일찍이 Mario Pei(1965)가 주장한 것처럼 미국의 주명(State Names) 중 1/2이나 되는 Indian 지명이 잔존해 그대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상(商 1766B.C.~)나라의 은허(殷墟)에서 발굴된 갑골 문자로 기록된 고대 복사지명(卜辭地名)들이 현재까지 여전히 사용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국토 내에서도 같은 사실이 발견된다. 함경도와 평안도 지역에 아직도 잔존하여 쓰이는

童巾(통권=鐘)山, 豆漫(투만=萬)江, 雙介(쌍개=孔·穴)院, 韓舍(위허=石), 羅端(라단=七)山, 回叱家(회가), 韓東(오동), 禿魯(투루)江

등의 여진어 지명이 바로 그것들이다.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 지명의 특성으로 인하여 결과되는 상식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이의가 제기될 수 없다면 이 원리가 고대 한반도에 있어서 중부지역(백제 전기지역)의 지명에도 적용되어 마땅하다. 따라서 이 중부지역

중 적어도 위 <도표 1, 2>의 A지역의 지명은 기층면에서 고구려어 아닌 백제어와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우리들은 한국의 고유지명이 신라의 경덕왕에 의하여 중국식 2자 지명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인식하여 왔다. 물론 그 개정작업이 거국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진 점만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경덕왕 16년(757)의 단행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경덕왕의 그와 같은 개정작업이 곧 우리의 고유지명을 한어화(漢語化)한 최초의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고유지명에 대한 한역(漢譯)은 경덕왕 이전 삼국통일(660년 백제망, 668년 고구려망) 당시 혹은 그 이전부터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가령

沙伐國 > 上州(법흥왕 11년) > 尙州(경덕왕 16년)  
 甘文小國 > 靑州(진흥왕 18년) > 開寧(경덕왕 16년)

등과 같이 경덕왕 이전에 이미 沙伐國이 上州로, 甘文小國이 靑州로 개정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사례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내용 중에 많이 들어 있다.

위에서 우리는 한국의 지명사에서 고유지명의 개정작업이 삼국통일 이전부터 수시로 행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지명개정의 요인을 행정구역의 개편과 정복지역에 대한 행정상의 정비나 재조정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가 남침하여 중부지역을 강점한 후에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를 택하여, 신라가 통일을 성취한 이후 약 1세기만에 경덕왕이 전국의 지명을 행정용(?)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한역 개정한 것처럼, 고구려도 보다 이른 시기에 개혁을 단행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이다.

위의 가능성을 유의하면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할 문제가 있다. 신라 지명(지리 1)과 백제 지명(지리 4)이 가지는 별지명이 고구려(지리 4)의 그것에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도 압록강 이북 지역의 지명(鴨綠水以北 32個城名)은 별지명이 없다. 아마도 새로운 개척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사실은 이른 시기에 고구려가 점령지역에 대대적



인 지명개정을 단행한 사실을 암시하는 증거인 것이다. 실지로 고구려의 후기 지명(지리 4)은 복지명 중 어느 하나가 대체적으로 한역되어 있다.

**A⇒B(A를 B로 漢譯: 다음 2.2.1. <지도 3>의 분포도 참고)**

- ① ▲ 買⇒水; 買忽⇒水城, 買且忽⇒水谷城, 買伊⇒水入, 於斯買⇒橫川, 伏斯買⇒深川
- ② + 達⇒高, 山; 達忽⇒高城, 達乙省⇒高峰, 功木達⇒熊門山, 所勿達⇒僧山, 松村活達⇒金山
- ③ ♣ 吐⇒堤; 主夫吐⇒長堤, 束吐⇒棟堤, 吐上⇒堤上, 毛末⇒(朴)堤上
- ④ ● 密(mil)⇒三; 密mil波兮⇒三峴; 悉sil直⇒三陟  
(※于次(uc)且忽⇒五谷城, 難隱(nanin)別⇒七重城, 德(tök)頓忽⇒十谷城)
- ⑤ ◎ 薩⇒青; 살수⇒청천강, 살매⇒청천
- ⑥ ■ 功⇒熊; 功木達⇒熊門山
- ⑦ ● 押⇒岳; 加火押⇒唐岳, 阿珍押⇒窮岳, 扶蘇押⇒松岳
- ⑧ □ 波衣(兮)⇒峴, 岑, 嶺; 夫斯波衣⇒松峴, 烏生波衣⇒獐嶺, 斤'波兮⇒文峴

요컨대 고구려한테 점령당하기 전에 백제가 거의 500년 동안 사용한 토착 지명은 백제의 전기어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토착 지명이 분포한 지역 역시 백제 영토이었지 결코 고구려의 영토가 아니었다. 다만 100년 안팎의 고구려 점령 지역이었을 뿐이라 하겠다.

2.1.4. 신라 경덕왕은 16년(757)에 국토를 9주로 분정(分定)하였다. 통일 이전의 판도를 3개주(漢州·朔州·溟州)는 고구려에 배정하였고, 3개주(熊州·全州·武州)는 백제에 배정하였고, 나머지 3개주(신라의 본토이었던 尙州·良州·康州)는 신라에 배정하였다. 그런데 고구려에 관한 배정시기를 하필이면 고구려가 남침하여 영토를 최대한으로 확장한 고구려의 판도(영토)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만일 배정 시기를 앞당기면 ‘한주·삭주’는 백제의 영토가 되고 ‘명주’는 신라의 영토가 되기 때문에 삼국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삼국통일이 아닌 이국통일이 되어버린다. 사실 <지도 1>이 보여주



<지도 3> 진흥왕 때의 신라 영토

는 바와 같이 경덕왕이 고구려로 배정한 영역은 고구려의 점령지역에 해당할 뿐인 백제영토(한주·삭주)와 신라 영토(명주)를 도루 찾은 데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 영역을 고구려의 영토로 위장한 것이다. 삼국통일의 대업(大業)을 성취한 것처럼 조작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방안이었다. 또한 신라에 배정한 3개주도 가락국이 망한 이후의 시기를 택하였다. 그래야 가락국의 존재가 은폐되고 인위적으로 조작한 통일 삼국 중의 주최국인 신라의 영토가 다른 두 나라와 거의 대등하게 설정되고 4국이 설정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한편 진흥왕 때(540~575)의 삼국 영토를 기준으로 할 때 <지도 3>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신라는 당나라와 동북부(현 함경남도)를 포기하는 대신에 서부(현 황해도)를 차지하는 정도로 국토를 조정하는데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고구려의 영토는 한치의 땅도 흡수하지 못한 셈이다. 따라서 신라는 ‘2국 통일’을 하였을 뿐이다.

## 2.2. 백제 전기어와 가라어의 상관성 문제

2.2.1. 백제 전기어의 어휘 특성이 가라어에도 분포되어 있음이 <도표 3>에서 확인된다.

특성표: ▲買(⇒水·川), +達(⇒高·山), \*吐(⇒堤), ●密(⇒三), △一利(⇒星)  
 ○磁(⇒靑), ■熊(⇒고마), ●押(⇒岳), □波衣(⇒靛) 등

다음 어휘 대응에서 전자는 백제 전기어에 해당하고 후자는 남부 지역에 분포하였던 한계어(韓系語)에 해당한다. 가라 지역에 이질적 지명소(전자)가 얼마나 어떻게 분포하였나를 파악하여 보도록 하겠다.

① ▲買(\*mai=水·井·川): 勿(\*m+r=水)

다음 <도표 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買(▲)’는 A-㉔지역에 1개, A-㉞지역에 14개(▲표의 2~15), B지역에 4개(▲표의 16~19), C지역에 3개(▲표의 20~22), D-㉔지역에 2개(▲표의 23~24)가 발견되는데 D-㉞지역(신라의 본토)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買’는 한계어인 ‘물(水)과 대응하는 존재로 가라어에 두 어형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② ⊕達(\*tar=高·山): \*mori(>moi=山)

‘達(⊕)’은 A-㉔지역에 1개, A-㉞지역에 5개(⊕표의 2~6), B지역에 6개(⊕표의 7~12), -㉔지역에 4개(⊕표의 13~16, 특히 13~15는 고구려의 점령선에 인접해 있는 사실을 유의할 것)가 유기적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達’은 ‘moy’(<\*mori=山)와 대응되므로 주목된다.

③ \*吐(\*tu=堤)

의미하는 지명소 ‘吐(\*)’(\*tu>tuk=)가 A-㉞지역에 3개(\*표의 1~3), B지역에 2개(\*표의 4~5), D-㉔지역에 1개가 나타난다. 그런데 C지역과 D-㉞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하는 한계어의 어휘가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중세 국어의 ‘두둑~두던~두렁’의 ‘두’, ‘언덕~둔덕’의 ‘덕’, ‘둑’(>뚝) 등이 ‘\*tu’(吐)에서 발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④ ● 窞(\* mir=三): 悉(\* siri&gt;siØi&gt;sii&gt;sai&gt;se=三)

기본 수사 3을 의미하는 ‘窞(●)’이 A-⑥지역과 B지역의 접경인 대관령 嶺西기슭에 1개, D-④지역에 5개(●표의 2~6)가 서로 이웃하여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다. 아마도 백제 전기의 지명에 나타나는 기타 수사 ‘于次(\* uc=五), 難隱(\* nanin=七), 德(\* tōk=十)’도 동일한 어형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계어 수사로 추정되는 ‘悉’(\* siri>sey>se=三, 悉直>三陟)이 역시 三의 뜻으로 B지역에 나타난다. 동일 지역 그것도 대관령의 동서(東西) 기슭에 대칭으로 ‘窞’과 ‘悉’이 공존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이는 산맥을 분계령으로 한 동서지역의 언어가 다를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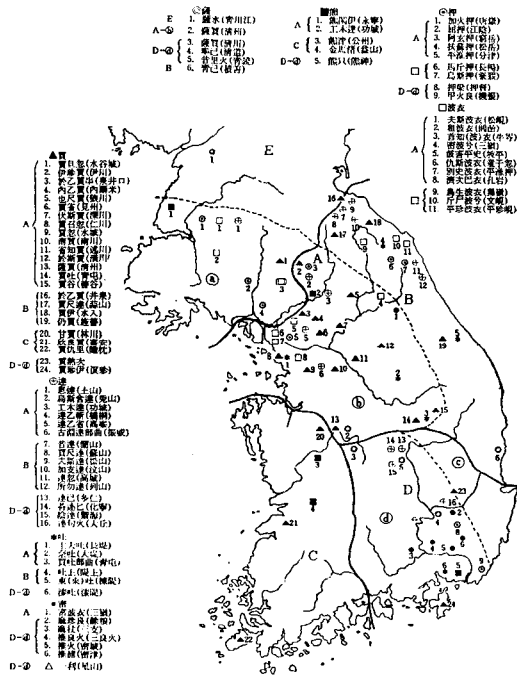
## ⑤ △ 一利(\* iri=星): 八莒~八里(\* pyəri=星)

星을 의미하는 ‘一利(\* iri)가 가라어 지역인 D-④지역에서 1개(번호 없는 △표) 나난다. 비록 유일할지라도 이것은 백제 전기어와 가라어의 관계를 밝히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아직까지도 낙동강 상류천을 ‘一利川’ 혹은 ‘星川’이라 부른다. 지명의 보수성을 감안할 때 ‘一利川’(=星川)은 어휘사적인 면에서 매우 진귀한 근거 자료이다(도표 3에서 △표 참고).

## ⑥ ◎ 薩(\* sar=靑): 古良(\* kora=靑)

靑(혹은 淸)을 뜻하는 ‘薩’(\* sar)이 A-④지역에서 조금 벗어난 북역에 1개(이른바 薩水=靑川江), A-⑥지역에 1개, D-④지역에 3개(◎표의 3~5), B지역의 하단에 1개가 나타난다. 아마도 고구려 본기에 보이는 ‘薛賀水’ 역시 ‘薩賀水’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C지역의 古良夫里>靑陽의 ‘古良’(\* kora=靑)에 대응되므로 같은 한계어를 토착어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가라어에도 침투하였을 것이다(<도표 3>에서 ◎의 분포 참고).

<도표 4> 백제 전기어와 가리어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지명소의 분포



⑦ ■熊 (\* koma)

이 단어는 A-㉔지역에 1개, A-㉕지역에 1개, C지역에 2개(■표의 3~4), ㅓ-㉔지역에 1개가 분포되어 있다. 일찍이 도수희(1974: 57~85)에서 \*koma의 어원과 분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논의한 바이기에 그리로 미룬다. 다만 웅'이 D-㉔지역에까지 하강 침투하여 있는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도표 3>에서 ■의 분포 참고).

⑧ ●押 (\* ap=岳·嶽)

岳(嶽)을 의미하는 '押'(\* ap)이 A-㉔지역에 3개(●표의 1, 2, 4), A-㉕지

역에 2개(●표의 3, 5), B지역에 2개(●표의 6, 7), D-④지역에 2개(●표의 8, 9)가 나타난다. 그런데 C지역과 D-③지역에는 한 예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E지역에서는 ‘居尸押’, ‘骨尸押’과 같이 2개가 발견된다. 따라서 이것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어휘인 듯하다(<도표 3>에서 ●의 분포 참고).

⑨ □波衣~波兮(\* paivy~pahyøy=峴·嶺)

峴(嶺)을 의미하는 ‘波衣’(\* paivy=峴·嶺)가 A-①지역에 3개(□표의 1~3), A-⑥지역에 5개(□표의 4~8), B지역에 3개(□표의 9~11)가 산재하여 있을 뿐이다. 그러나 기타 C·D·E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波衣~波兮~波害~巴衣’와 같이 다양하게 표기된 이것들은 중부 지역에만 분포하였던 아주 특이한 어휘로 한계어와 다른 성질의 것이었던가? 아마도 가라어로는 ‘고개’ 혹은 ‘재’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2.2.2. 두 언어가 어휘의 친근성을 보일 때 그것이 계통성인가 아니면 차용성인가를 판별하기가 매우 어렵다. 가령 두 언어가 같은 계통일지라도 긴 역사 속에서 다른 언어로 이식될 만큼 소원하여진 단계에 이르러, 적극적인 언어 교섭으로 인하여 어휘의 유사성이 발생하였다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랜 세월이 다시 흐르면 옛날의 언어 교섭 사실이 감추어져 그 유사성을 계통적 속성으로 오인할 수도 있게 된다. 이런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곧 가라어의 어휘 특성이 아닌가 한다. <도표 3>에서 우리는 A·B(-북단)지역과 D-④지역 사이에서 여러 가지 동질적 요소들을 많이 발견하였다. 어찌하여 A·B지역의 특징이 C와 D-③지역에는 없고 유독 D-④지역에만 조밀하게 뿌리 박혀 있는 것인가? 이 의문을 우리는 두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 하나는 “가라어(D-④지역어)와 백제 전기어(A지역어)가 동일 계통이었기 때문이다.”이고, 다른 하나는 “백제 전기 시대에 백제의 문물이 가라국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침투(차용)되었기 때문이다”이다.

필자는 두 가능성 중 후자가 더욱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도수희

(1984)에서 이미 상논하였지만, 백제가 일본에 선진 문물을 전한 시기가 그 전기 시대(현, 경기 廣州시대)였다. 이 때에 백제와 일본을 이어준 교량국이 곧 가락국이었다. 자매적일 만큼 친숙하게 국교가 다져지지 않고는 그렇듯 교량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사신이 가락국을 통해 백제(전기시대)를 왕래한 사실이 『일본서기』(720)에 나타나고, 이른바 백제사람 아직기(阿直岐)와 왕인(王仁)이 일본에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가져가 저들을 교육한 시기도 거의 이 무렵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 2.3. 백제 전기어와 고대 일본어의 상관성 문제

2.3.1. 백제 전기어(이른바 고구려어)와 고대 일본어의 어휘 사이에 짝은 유사성이 있음을 여러 학자들이 빈번히 발표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고대 한반도의 중부 지역의 언어는 고구려어가 아니라 백제 전기어이었기 때문에 비교의 대상도 자동적으로 백제 전기어로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만을 강조하여 둔다.

여기서는 특히 기본 수사 체계가 동일하다는 사실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백제 전기어			고대 일본어	
密	mil	(三)	mi	(三)
于次	uc	(五)	itu	(五)
難隱	nanin	(七)	nana	(七)
德	tök<? * töwök	(十)	töwö	(十)

위와 같이 기본수사 중 4개 수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아마도 백제 전기의 지명이 나머지 ‘一, 二, 四, 六, 八, 九’의 고유어까지 반영하였더라면 역시 동일한 양상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기본수사의 어형이 거의 상사형(相似形)인 점을 우리는 주목하게 된다. 일찍이 필자(1994: 70~76)가 두 나라 말의 어휘를 비교 고찰한 결과 유사하게 대응되는 어휘가 34개 이상이었다. 이

것들의 대부분이 명사라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2.3.2. 그 동안 여러 학자들이 ‘두 나라 말이 동계어임’을 주장하는 강력한 뒷받침은 위와 같은 수사의 ‘동일성’이었다. 위에서 추정된 바와 같이 만일 백제어에서 나머지의 기본 수사까지 지명에서 발견된다면 이것들 역시 일본어의 수사와 동일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그렇다고 전제하여도 우리는 ‘동계’라는 주장을 선뜻 수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수사체계는 얼마든지 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말이 언젠가 중국어의 수사 체계를 차용하여 왔고 일본어 역시 동일한 과정을 밟았기 때문이다. 이와 동일한 차용절차를 일본어가 백제 전기어로부터 답습한 것이다. 만일 중국문화의 선진 물결을 타고 중국어 수사가 백제에 들어왔다면 또한 백제의 선진 문화를 타고 백제어 수사도 일본어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더욱이 그것이 백제 전기의 언어에서만 사용되었을 뿐 그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특이하다. 아니면 한반도로부터 도왜(渡倭)한 대군중(大集團)이 지배어족(語族)이 되어 스스로의 수사체계를 그곳에 이식성장(移植成長)케 한 결과라 하겠다.

2.3.3. 백제가 일본에 문물을 전해주기 시작한 시기가 전기(수도 漢忽: 현 경기도 廣州) 시대이었다. 이 시기에 백제의 선진 문화가 일본으로 물밀듯 동류(東流)하였던 것인데 그 때에 가라국이 백제와 일본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위에서 파악한 바와 같이 백제어와 가라어 사이의 어휘 분포의 자매적인 특성이 가라국이 백제어의 동류(東流) 통로이던 사실을 증언하기 때문이다. 「일본서기」도 일본의 사신이 가라국을 경유하여 백제 수도 한홀(漢忽: 현 廣州)에 들어 왔고 백제의 사신 역시 가라국을 통하여 일본에 건너간 사실을 밝히었다.

요컨대 백제의 전기 시대에 백제어가 일본으로 東流한 통로는 ‘백제(전기) →가라→일본’과 같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양국의 적극적인 문화교류는 언어의 교류도 수반됨을 의미한다.

일본의 남부 지역과 한반도의 남부 지역은 대마도를 사이에 두고 마주 바



라보고 있는 동일한 문화권이다. 일본의 남부는 구주(九州)와 근기지역(近畿地域)이며 한반도의 남부는 가라지역인 것이다. 이 양 지역이 현대처럼 엄격한 국경선이 없었던 고대에 있어서 근린(近隣)의 동일 문화권으로 묶이어 피차간에 문물을 자유롭게 교류하였을 것이다. 양국의 적극적인 문화 교류는 곧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선진 백제의 언어가 일본으로 동류한 통로는 ‘백제(전기)→가라→일본’과 같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백제어가 일본으로 흘러간 파동은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백제가 馬韓을 병합한 시기를 중심으로 백제의 전기어가 가라국을 경유하여 일본에 들어간 파동이 그 하나요, 이후 이른바 공주와 부여 시대의 백제가 현 전남 康津과 群山浦(옛 白江口)를 통하여 동류(東流)한 다른 하나이다.

## 인용문헌

- 도수희, 백제어의 金馬渚에 대하여, 百濟研究 제5집, 충남대 백제연구소(百濟語 研究 II 再錄, 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9), 1974.
- \_\_\_\_\_, 백제 전기어와 가라어의 관계, 한글 제 187호, 한글학회, 1985.
- \_\_\_\_\_, 百濟語 研究(박논), 아세아문화사, 1977.
- \_\_\_\_\_, 百濟語 研究 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7.
- \_\_\_\_\_, 百濟語 研究 I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9.
- \_\_\_\_\_, 百濟語 研究 III,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4.
- \_\_\_\_\_, 百濟語 研究 IV, 백제문화개발연구원, 2000.
- 朴炳采, 古代 三國의 地名語彙攷, 白山學報 제5호, 白山學會, 1968.
- 李基文, 高句麗의 言語와 그 特徵, 白山學報 제4호, 白山學會, 1968.
- 金澤庄三郎, 日韓兩國語同系論, 三省堂, 1910.
- \_\_\_\_\_, 日鮮古代地名의 研究, 月刊 2-2, 朝鮮總督府, 1912.
- 新村 出, 國語及朝鮮語의 數詞에 對하여, 文藝 7-2·4(「言葉의 歷史」에 수록), 1916.
- 鍾柏生, 殷商卜辭地理論叢, 藝文印書館(대만), 중78.
- Mario Pei, Our Language, 1965.

[Abstract]

## Language and History

Su-Hee Toh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e historical facts usually remain in the linguistic records. The name of a place has been considered most useful among the records. The name of a place contains lots of information which help us analyzing and explaining the historical problems.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ccount for the relation between language and history based on the data of the name of a place with the property just mentioned above. Firstly I will estimate the territory of the former period of Paek-Che (18B.C.~475A.D.) on the basis of the distribution of the old name of a place and show that the presumed shape of the territory could prove the fact that the unification of Shilla is 'the unification of two nations' but not 'the unification of three nations.' Secondly the distribution of the old name of a place can bring light on the interrelation between Paek-Che language and Kara language and help us understand the relation of neighboring countries between two nations. Thirdly we can discuss the relation between the language of the former period of Paek-Che and of the old period of Japan: that is, how the language of Paek-Che came in the Japanese language. Also, the history of cultural domination between Paek-Che and Japan could be clarified if we can prove the linguistic similarity of two nations either to be genealogical relation or to be borrowing one.